

물 뿌린 공터서 훈련... 유망주는 떠나고

“빙상장 필요해”

전남도체육회는 오는 18일부터 강원도 평창 등지에서 열리는 '제94회 전국 동계 체육대회'를 앞두고 고민이 많다.

지난해 7위(금4·은3·동메달 3개) 종합득점 291

점보다 순위가 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전남은 이번 대회에 스키·바이애슬론·빙상(쇼트트랙)·컬링 등 4개 종목에 149명(선수 72·경기임원 35·본부임원 42명)이 참가한다. 금2·은2·동메달 2개로 종합 10위로 목표를 잡았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 30점을 기록한 아이스하키팀이 올해는 선수 구성이 되지 않아 불참한다. 또 지난해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에서 금3·은메달 1개를 딴 국가대표 문지희가 올해는 국가대표급 우수선수 종목 중북 불출전으로 대회에 나서지 못한다”며 순위 하락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동계 종목 시설한 곳이 없는 전남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안타까워했다.

전남 지역의 동계 종목 관련 시설은 거의 없다.

광양 부영국제빙상장이 전남 지역의 유일한 동계 종목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도 전남 빙상연맹 박부영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설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외부 지원



등이 없는 상황에서 선수 전용 훈련장으로만 쓸 수 없다.

이 때문에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등 빙상 선수들이 가끔 이곳을 훈련장으로 쓸 뿐 다른 종목 선수들은 모두 원정 훈련을 떠난다.

스키와 바이애슬론 선수들은 강원도 등지에서 대회를 준비한다. 컬링팀은 광양 부영빙상장의 빙질이 훈련하기에 부적합해 전주나 경북지역의 전용 빙상장을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아이스하키팀은 훈련장이 없어서 공터에 물을 뿌려놓고 훈련을 하는 실정이다.

제대로 된 훈련장 한 곳이 없으니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주가 나와도 타 지역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여자 피겨에서 '제2의 김연아'로 불리고 있는 박소연(16·강일중 3)은 나주초교 출신이다. 6학년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갖췄지만 훈련장이 없어 결국 서울로 전학을 갔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전남 지역의 동계 종목 시설은 염주체육관내 실내빙상장이 있는 광주보다 못한 실정이다. 광양 빙상장의 경우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운영비도 빠듯해 선수들이 사용할 수 없다. 앞으로 전남의 동계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용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소연 기자 sypassion@